

인권정보자료실
CPk1.41.1

김근태씨 고문사건 신문스크랩 (1)

김근태 ①



CROCKYBOOK

남광사

미술용모조

MADE IN KOREA CO., LTD.

인권정보자료실
CPk1.41.1

金槿泰씨 고문폭로 法廷冒頭진술

<1985년 12월19일>

지금 검찰과 변호사간에 있었던 공방에 대하여 본인이 자세하게 증명을 한다면 보다 더 좋은 증명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급박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지난 9월 한달 동안 남영동에 있는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참혹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검사 제지) 본인의 이 사건은 지난 9월 한달 동안 남영동에서 있었던 비인간적이고 불법적인 고문에 의해 그리고 동물적인 능욕과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생명에 대한 위협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사법적 정의가 이루어지고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가해졌던 참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이러한 고문이 조사되고 색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당 재판부에 본인에게 가해졌던 고문의 경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 9월 한달 동안 가해졌던 고문의 후유증이 현재 본인에게 상당한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행이 불편하고 머리가 대단히 아프고 등이 아픕니다. 소화가 되지 않고 몸의 균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한달 동안 고문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가해졌던 정신적인 상처입

니다. 본인의 인간적인 자존심과 주체성은 산산이 부서졌고 찢어졌습니다. 동시에 인간에 대한 신뢰와 희망은 짓밟혀졌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후유증으로 지금도 남아있고 이것이 당 재판부에 조사를 요청하는 두번째 이유입니다.

세번째 이유는 본인이 변호인을 만난 것이 재판 시작일에서(12월19일) 불과 열흘전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방어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가해졌던 용서할 수 없는 고문행위를 은폐하려는 기도였습니다. 9월26일 기소가 된 후 10월 초순 내지 중순쯤 변호인이 접견을 요청할 시기에 검찰측은 여러차례에 걸쳐 오후 3시30분 내지 5시에 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은 출정을 나갔을 때 검찰관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온 경우가 네차례나 있었고 또한 검찰청에 도착했을 때 검찰관이 없는 경우가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과 당시의 여러 사정을 미루어 보아 이것은 본인에게 가해졌던 고문의 흔적 그것을 은폐하려는 기도가 검찰과 정치권력 사이에 긴밀한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다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마지막으로서는 이러한 은폐 기도

와 더불어 본인에게 가해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위협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남영동에서 고문을 받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어지러운 듯한 간간을 붙들고 숨을 몰아 쉴) 담요 위임에도 불구하고 발뺌꿈치가 짓뭇개졌습니다. 그 발뺌꿈치 상처가 딱지로 아물면서 지난 10월말 내지 11월중에 딱지가 떨어졌습니다. 이 딱지를 본인은 당 재판부에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 보관해 왔습니다. 지난 12월13일 오전 4시경 이돈명 변호사, 목요상 변호사, 조승형 변호사 세분이 접견을 오셨길래 하도 반가워서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공판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자유롭게 수거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생각해 세분에게 보여드리고 그것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교도관 세 명의 제지에 의해서 이것이 전달되지 못했고 예측했던 대로 본인이 병사에 돌아가자마자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송선웅의 지휘아래 10여명이 달려들어서 불편한 몸을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탈취해 갔습니다. 본인도 『이러면 증거인멸의 죄에 해당한다』고 주지시키고 또한 『이러지 말라』고 애원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증거인멸 뿐만 아니라 본인의 안전이 아직도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본인에게 가해졌던 고문행위에 대해서 명백하고 엄정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이제 간략하게 9월 한달동안 남영동에서 본인에게 가해졌던 고문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이때 검사가 제지하고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방청석에서 『와 뒤』, 『도둑놈들』이라는 아우성이 터짐). 본인은 이 기억을 되살리며 치명적인 분노와 굴욕감을 느낍니다. 우선 남영동 치안본부에서 본인에게 요구했던 것

은 「항복」입니다. 항복을 받기 위해서 깨부수겠다고 이야기했고 또한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더 많이 깨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번째는 국가안보사건과 관련된 본인의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한계에 부딪치게 하여 좀더 일찍 체념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에게 자신을 포기할 계기를 주기 위해서 고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세번째는 새로운 사실에 대한 심문이 시작될 때는 언제나 고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네번째는 본인을 고문대 위에 올려놓고 고문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암기시키고 학습시키고 복습을 시켰습니다. 본인에게 가해졌던 고문은 준비되고 계획되고 의도된 것이 분명합니다(지친듯 잠깐 중단함). 이러한 과정에서 고문자들이 본인에게 요구했던 것은 첫번째로 폭력혁명주의자인 것을 자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번째로 본인의 사상이 사회주의이다. 세번째로 민청련이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첫 깃발을 80년대 이후에 올린 이래 각계 각층에 작동하는 선과 인물을 대라. 다시 말하면 본인이 한국의 민주화운동 반군사독재운동에 있어서의 지휘자·슈퍼맨이 될 것을 자백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예컨대 학생과 노동자, 현실정치인, 재야, 개신교, 가톨릭 심지어 미국과 사업가 또는 현 정치권력 내부에서 누구와 민주화운동을 의논해서 해나가는지 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슈퍼맨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랬더니 무조건 요구하는 대로 자백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인은 이 용서할 수 없는 고문을 가하는 자들에게 인간적 절망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곳에서 그 사람들은 본인에게 절대전능한 신으로 군림했습니다.

본인은 9월 한달 동안, 9월4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각 5시간 정도 당했습니다. 전기고문을 주로 하고 물고문은 전기고문으로 발생하는 쇼크를 완화하기 위해 가했습니다. 고문을 하는 동안 비명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라디오를 크게 틀었습니다. 그리고 비명 때문에 목이 부어서 말을 못하게 되면 죽자 약을 투여하여 목이 트이게 하였습니다(어지러운 듯 말을 중단하고 난간을 붙들면서 잠깐 쉬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9월4일날 각 5시간씩 두차례 물고문을 당했고 9월5일, 9월6일 각 한차례씩의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곁고루 당했습니다. 8일에는 두차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했고 10일 한차례, 13일.....13일 금요일입니다. 9월13일 고문자들은 본인에게 「최후의 만찬이다, 「예수가 죽었던 최후의 만찬이다, 「너 장례날이다」 이러한 협박을 가하면서 두차례의 전기고문을 가했습니다(검사가 이의 제기하자 방청석에서 「조용히 해, 「계속해」라고 외침). 그 다음에 20일날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한차례 받았습니 다. 그리고 25일날 집단적인 폭행을 당했으며 그후 여러차례 구타를 당했습니다. 물론 잠을 못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밥을 굶긴 것도 대략 절반쯤됩니다. 고문 때문에 13일 이후에는 밥을 먹지 못했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밥을 먹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고문을 할 때는 밥을 주지 않는데 고문을 하지 않을 때도 밥을 주지 않아 심리적인 압박과 고문이 다가오고 있다는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몇가지 증언을 하면, 이 고문자들은 고문을 가하면서 예컨대 8일날에는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사장이란 자가 10시에 5층15호실, 본인이 고문을 받았던 그곳 실내로 들어와서 「룻구멍에 고추가루를 넣어서 폐기중으로 죽게 만들어 버려라, 내가 직접 이것을 지휘하겠다」고

말을 하는가 하면 또 전무라는 자는 「정치가 법보다, 다시 말해서 「주먹이 법보다 가깝다」는 것을 본인에게 납득시키고 받아들이도록 강요했습니다. 델시가방을 갖고 다니면서 그 가방에 고문도구를 들고 다니는 건장한 사내는 본인에게 「장의사 사업이 이제야 제 철을 만났다. 이제 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느냐, 속으로 부서져서 병사를 했다. 너도 각오해라. 지금은 네가 당하고 민주화가 되면 내가 그 고문대 위에서 줄테니까 그때 복수해라」 이러한 참혹한 이야기를 하며 본인에 대한 동물적인 능욕을 가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문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은 알몸이 되고 알몸상태로 고문대 위에 묶여졌습니다. 추위와 신체적으로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본인에 대해 성적인 모욕까지 가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제 생식기를 가리키면서 「이것도 좆이라고 달고다 너? 민주화운동을 하는 놈들은 다 이따위야」 이렇게, 말하자면 깔아뭉개고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고문을 할 때는 온 몸을 발가벗기고 눈을 가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대에 눕히면서 몸을 다섯군데를 묶었습니다. 발목과 무릎팍과 허벅지와 배와 가슴을 완전히 동여 매고 그 밑에 담요를 깔아줍니다. 머리와 가슴, 사타구니에는 전기고문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고 발에는 전원을 연결시켰습니다. 처음엔 약하고 짧게 점차 강하고 길게, 강약을 번갈아 하면서 전기고문이 진행되는 동안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에 다가와(이때 방청석에서 울음이 터지기 시작, 본인도 울먹이며 진술함) 이때 마음속으로 「무릎을 꿇고 사느니 보다 서서 죽기를 원한다」(방청석은 울음바다가 되고 심지어 교도관들조차 숙연해짐)는 노래를 뇌까리면서 과연 이것을 지켜내기 위한 인간적인 결단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절감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연상했으며 이러한 비인간적인 상황에 대한 인간적인 절망에 몸서리쳤습니다(방청석 통곡). 그리고는 이렇게 비인간적인 고문이 자행되는 것을 보니 「새로운 광주사태가 발생하거나 준비되고 있구나」하고 생각을 하며 본인은 여기에서 죽을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러한 결심을 고문 담당자에게 말하자 「그것은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굴복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본인에 대한 고문은 진술거부 때문이 아니라 미리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문을 하면서도 분노나 흥분의 빛이 없이 냉담하게 미소까지 띄우고 있었습니다. 과연 인간이 한 인간의 고뇌와 죽음의 몸부림 앞에서 어떻게 냉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 인간에 대한 신뢰가 산산이 부서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문을 하면서 「시집간 딸이 잘 사는지 모르겠다」 「아들놈이 체력장을 잘 치렀는지 모르겠다」는 등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애정어린 말들을 주고 받았으며 본인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고문과 폭력적 행위를 자행하는 자들이 개인의 가족들에게는 인간적인 사랑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양면성이 공존할 수도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인간에 대한 희망이 다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고문을 전담하던 자 중의 한 사람은—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나중에 혼자서 제 손을 잡고 이야기하기를 「고문을 하는 것을 보고 구역질이 났다. 여기서 빨리 나가라. 허위로라도 다 인정해라. 여기 있으면 당신은 죽는다」고 울면서 이야기 하

였습니다. 결국 9월20일이 되어서는 도저히 버티지 못하게 만신창이가 되었고, 9월25일에는 마침내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만 더 버티면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훨씬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집단 폭행을 가한 후 본인에게 알몸으로 바다를 기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빌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요구하는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쓰라는 조서내용을 보고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9월26일날 포니자동차를 타고 서부역을 지날 때 낮익은 거리, 푸른 하늘이 아직도 있구나, 푸른 하늘이 나에게 다시 왔다. 이것은 인간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감회가 새로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검찰청 5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제 처를 만났습니다. 대기실에서 짓궂어진 본인의 발뒤꿈치를 제 처와 이을호씨 부인 최정순씨가 보았습니다. 그때 대기실 건너편 옥상에서는 인부 10여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인간의 땀과 창조가 어떻게 계속되고 있구나, 저것이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구나, 그래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고 결심을 새로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치소로 이송된 이후 현재까지도 협박적인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실제적 진실, 사법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군사독재정권을 물리치고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요구가 보장되고, 현재 양심수나 재소자의 인간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위의 사실이 충분히 조사되기를 바랍니다.

개성과 여성의
다정한 파트너

자신있고 지혜로운 여성들이 선택하는

83,
10.23
동아

民青聯 金權泰씨
保安法적용 기소
서울지검 공안부는 25일
前民青聯의장(前)전민청련의장
金權泰씨(38)를 국가보안법위
반행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민청련의장(前)전민청련의
장(前)金權泰씨가 조사가 진행
중이던 중 서울지검 공안부에서
서울지검에서 북한채, 참교
인전술조서와 압수물을 기타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다.

구속된 金權泰씨
점견 차입禁止令
서울형사지법 합의 11부(徐
慶우장관사)는 7일 국가보
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청련전임의장 金權泰씨(38)
에 대해 첫유죄판결을 내렸다.
이 대법원 판결은 전까지
가속 및 친지와의 점견과 서
문 등 차입을 금지하는 결정
을 내렸다.

1985, 동아

103쪽 | 日字: 1985. 10. 16

前民青聯의장
「拷問」 증거보전
"이유없다" 기각
서울형사지법 5단독 심
판(장관사)은 16일 전민청련의
장 金權泰씨(38)의 증거보전
신청(증)의 변론인단이 변술
씨의 신청에 받아들여 고문
혹은 대안 증거보전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26, 1.30 동아

「탐원서 고소장 집행허가 안해준다」

金權泰피고 재판거부

민청련 정의장 金權泰피고 인(38)에 대한 국가보안법위 반사건 5차공판이 30일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徐慶후장관사) 심리로 열려 증거조사절차가 있었다.

이날 공판에서 송피고인인 「탐원서」와 고소장인인 집행허가 기외한 허가신청을 먼저 한 날이 별도로 허가가 나지 않았단 「피」는 불발구속과 기록보존을 피하기 위한 것 이므로 「탐원서」도 「피」의 재

판합기를 거부하겠다고 말 했다.

이 재판부는 검찰총장에 대 해 「지난번 집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면 서도 지금까지 허가를 하지 않 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

다.

집행총장은 「재판장의 뜻을 고려할 때 출몰허가정당관 계자들의 투의를 계속 해오 고 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다시 집행총장의

所載: 2판 日字: 86.2.6

동아

고소장·편지등 執筆허가 요구

金權泰피고 6차공판 前 민청련의장 金權泰피고 인(38)에 대한 국가보안법위 반사건 6차공판이 6일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徐慶후장관사) 심리로 열려 증거조사절차가 계속됐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신청한 金權泰씨(32·민청련중앙위원장·수장등)등 5명에게 증거인멸을 저지른다는 이유로 재판에 응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날 공판에 앞서 「피」가 집행허가정당관 계자들에게 편지 등을 받았지만 이는 탐원서집행에 만류되고 아직도 변호인에 대한 편지와 고소장집행통 은 금지되고 있다 「피」 고소장

등에 대한 집행허가도 거절한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86. 2. 13

동아

金權泰피고 7차公判

前 민청련의장 金權泰피고 인(38)에 대한 국가보안법위 반사건 7차공판이 13일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徐慶후장관사) 심리로 열려 검

中金權泰구형구판 論告文(요지)

(가) 피고인 金權泰는 이회... (가) 피고인 金權泰는 이회... (가) 피고인 金權泰는 이회...

법원... (가) 피고인 金權泰는 이회... (가) 피고인 金權泰는 이회...

(나) 이 사건은 1985. 6. 30... (나) 이 사건은 1985. 6. 30... (나) 이 사건은 1985. 6. 30...

있든 폭력적... (나) 이 사건은 1985. 6. 30... (나) 이 사건은 1985. 6. 30...

金權泰피구인 12년求刑

서울地檢 自主統一논리 大學生들에 나쁜영향

서울지검은 金權泰피구인... (가) 피고인 金權泰는 이회... (가) 피고인 金權泰는 이회...

서울지검은 金權泰피구인... (가) 피고인 金權泰는 이회... (가) 피고인 金權泰는 이회...

있든 폭력적... (나) 이 사건은 1985. 6. 30... (나) 이 사건은 1985. 6. 30...

무릎을 꿇고 사느냐...

전 민청련의장 김근태씨 수기

(1) 7월 5

김근태(41)씨는 지난 83년 9월 공개적인 민주운동 단체로 출발한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의 장으로 이 단체를 주도하면서 전두환 독재정권에 맞서 줄기찬 반독재·민주화운동을 벌였다. 김씨는 85년 9월 체포돼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살인적 고문을 당해 여러차례 삶과 죽음을 넘나들었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지난달 30일 2년10개월만에 풀려난 김씨는 수감중이던 지난 5월4일 민주주의 수호와 인권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을 부인 인재근(36)씨와 함께 받기도 했다. 김근태씨의 수기를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83년 9월30일에 창립된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은 80년 5·17과 광주사태 이후 강요돼 온 죽음보다 깊은 침묵을 뚫고 조직운동으로서 솟아오른 것이었다. 돈암동에 있는 상지회관에서 창립총회를 마친 밤 9시30분께 박우섭·박계동씨를 포함한 간부 6명은 회관 현관에서 체포돼 안기부로 연행되었다. 이들은 안기부에서 일주일 정도 협박적인 수사를 받다가 풀려났다.

85년 8월24일부터 9월4일까지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산 구류는 민청련 의장으로 재임했던 2년 동안의 구금 중 일곱번째였다. 이 마지막 구류가 끝나던 날, 나는 잠이 덜 깬 채로 남영동(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끌려갔다.

그날 새벽 5시반 비가 내리면서인지 유난히 킁킁했다. 유치장 복도를 나서자마자 거한인 김영두가 경장도 사투리로 나를 가로막았다. "김근태씨죠, 같이 가봐야겠소" 순간, 구속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답답했지만 태연하고 차했다. "종소, 어디지 가봅시다" 하며 포니 승용차에 올라탔다. 김영두와 최상남은 잠바를 내 머리에 폭 뒤집어 씌우고 깃들였다. 그렇게 머리를 치박힌 채 남영동으로 끌려갔다.

5층 15호실. 그러니까 박종철씨가 물고문으로 살해된 그 바로 옆방으로 끌려갔다. 이날부터 9월26일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23일동안 전기고문 8번, 물고문 2번을 당했다. 한번 시작하면 3시간반 내지 5시간 정도씩 계속되는 것이었다. 나는 한번도 의식을 잃지는 않았다. 의식이 가물 가물 해지면 즉시 고문을 멈춘

다. 고문전문가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차라리 의식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고문자들은 나에게 그런 행운을 주지 않았다. 면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되어진 고문은 어디에도 들뜬 구석이 없었다. 냉정하고 엄

격하게 진행된 것이었다. 그 피 묻은 고문자행자들은 다음과 같다. 총경 윤재호, 경감 김수현, 경감 백남은, 경감 고문전문가(성명불상), 경위 김영두, 경장 정현규, 경장 최상남, 경장 박병선, 경장 임희갑 이렇게 9명이다. 이들은 사실 고문하수인에 불과하며, 진정한 고문주범은 '관계기관 대책회의'이고, 그 책임자였던 장세동이라고, 나는 단정한다.

고문은 물고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9월4일 오전 7시반부터 12시반까지 5시간 길었다. 팬티만 남긴 채 알몸이 되어 칠성대 위에 올려졌다. 남요에 들뜬말린 채 발목, 무릎, 허벅지, 배, 가슴, 다리를 칠성대 위에 꿰뚫어 놓았다. 눈은 가려지고 코와 입에는 두꺼운 노란타일이 덮여 씌워졌다. 머리는 약간 뒤로 젖혀지고, 두사람이 양 옆에서 힘껏 눌러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수도 샤워꼭지와 주전자에서 물이 '짜아' 하고 내리꽂혀왔다. 몸속에 딱딱 익사할



1988. 7. 17

남영동 끌려가자마자 물고문

폭력혁명가 시인 강요... "배후주범은 장세동"

때의 고통과 공포속으로 치넣어진 것이었다. 얼마간은 버텼다. 그러나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수건이 치워졌다. 나는 다짜고짜로 소리쳤다. "물은 말에 뭍든지 대답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백남은은 차디차게 비웃었다. "뭘, 물은 말에 대답하겠다고? 필요없어. 아직 멀었거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항복이야. 다시 시작해."

물고문은 또 시작됐다. 숨막히는 답답함, 질식해 버릴 것 같은 공포, 아득한 절망감... 그것 뿐이었다. 나는 기진맥진해졌다. "항복하자. 그래도 진술 거부할거야? 안하지?" 하는 뭔가 재촉하는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나는 머리를 끄덕거렸고 이어 수건이 치워졌다. 이렇게 하여 진술 거부권은 박살이 났다. 저항의지는 무너져가기 시작했다.

두번째 물고문은 4일 밤 8시부터 5일 새벽 1시까지 계속되었

다. 아무런 요구사항도 없었고 무조건 고문을 했다. 칠성대 위에 계속 묶어둔 채 잠시 고문을 중단하고 이런 것을 요구해왔다. 즉 나는 폭력혁명주의자이고 민족주의자로서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음을 시인하고 학생운동과 노동현장에서 움직이는 하수인을 대라는 것이었다. 나는 시인하지 않고 버텼다. 그러자 곧바로 물고문이 다시 시작됐다. 결국 첫번째 고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는 또 굴복을 했다. 이것은 구체적인 것의 시인은 아니며, 다른 사건으로 이미 피시공에 있는 이범영씨를 학생운동의 배후라고 범으로써 고비를 넘기자 라고 생각했다. 피신 중에 있기 때문에 그에게 뒤집어 씌워도 별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계산에서였다. 고문자들은 제재를 부르는 것 같았다. 그러나 하루쯤 뒤 이범영씨가 도피중인 것을 알고 낭패해 하면서 더욱 무서운 전기고문으로 앙갚음하고자 했다.

전기고문할 때는 팬츠마저 벗겨 버렸다. 회음부가 터져 피가 팬츠에 묻게 되면 골치가 아프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기 접촉면을 새끼발가락과 그 다음 발가락 사이에 끼우고 그것이 움직이지 않도록 붕대를 엄지발가락과 발등에 칭칭 감았다.

전기고문을 하기 전에 반드시 물고문을 먼저 했다. 전기충격을 예방하기 위해서였고 또한 전기고문과 물고문이 서로 작용하여 상승효과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물고문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온몸이 흥백 땀으로 젖게 되는데, 그때부터 전기고문은 시작된다.

처음에는 짧고 약하게, 그러다가 점점 길고 강하게, 중간에는 다시 약해지고 또 불안간 강력하게 전류를 보냈다. 가끔씩은 전기를 발등에 직접 대기도 했는데, 그 때문에 발등의 살가죽 점점이 꺼렇게 타 버리고

말았다. 외상을 남기지 않으면서 치명적으로 내상을 입히는 전기고문, 그것은 뜨거운 불인두로 온몸을 지져서 바삭 말라 바스러지게 하는 것이었다. 핏줄을 뒤 틀어 놓고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겨 마침내 마디마디 끊어 버리는 것 같았다.

빠개질 듯이 아픈 머리가 큰 수박처럼 부풀어오르는 것 같기도 했고 나는 칙칙하고 끈적끈적한 외마디를 계속 질러냈다. 멍때린 돼지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것처럼 희희 끼이끼이하면서 어두운 비명을 토해냈다.

거기에는 슬픔이라든지 뭐 외로움이라든지 그런 것이 끼어들

무릎을 꿇고 사느냐...

전 민청련의장 김근태씨 수기

3월 5 (2) 1988. 7. 20

여지는 전혀 없었다. 드디어는 축 늘어졌다. 전기 밧데리 충격으로 허연 배를 물 위로 내밀고 등등 떠내려가는 피라미가 되어 버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뿌우연 죽음이였다.

전기고문은 불독같이 생긴 고문기술자에 의해서만 행해졌다. 매우 위험한 것이어서 그랬을 것이다. 전형적인 깡패 타입의 이자는 델시라는 상표가 붙어 있는 가방 속에 전기도구를 가지고 다

닙니다" 그것 하나뿐이었다. 그리고는 고문자들이 불러주는 것을 외어야 했다. 고문대 위에선 어쩌나 잘 외어지는지...

5일과 6일의 전기고문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한 것은 두 가지였다. 그 중 하나는 정치군부의 폭압과 맞서 싸우기 위해 만들어진 비밀 학생운동 조직인 '민주화 추진위원회'와 나와의 관계였으며, 또 다른 하나는 민족민주주의 변혁운동론의 내용과

태에 빠진 채로 송치되어 쓴 자술서에 있는 몇 문장뿐이었다. 사실이 그러한데도 정치군부는 공소 제기된 직후 공소사실과도 거의 전적으로 동떨어져서 나에게 비열한 모략 선전을 해냈다.

제도언론은 그것을 공안당국의 발표라면서 대서특필하였고 어떤 신문은 사실로써 공격하기도 했다. 한국방송공사 텔레비전은 '김근태는 누구인가'라는 특집을 꾸며 두 차례 방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공수사단이 고문을 통해 강요한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민족민주주의는 내가 주장한 것이 틀림없다. 법정에서도 이를 밝혔다.

85년 3월말께 당시 민청련 간부였던 이윤호씨에게 이를 설명한 적이 있으며, 지금도 그것은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주 민

주 통일은 우리 민족이 쟁취해야 할 사활적 목표이다. 오늘날 광범한 대중이 이에 대해 열정적으로 동의, 지지하고

고문대 위서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뿐 초주검 상태에서 사건조작...KBS는 특집까지 꾸며

났다. 그동안 장의사 일이 없어 한가했었는데 이제 일감이 풍족하게 생겨서 살맛이 난다고 했다.

전기고문을 할 때는 반드시 라디오를 켜다. 라디오 속에서는 천하대평으로 지껄이고 있는 남자와 여자들의 수다가 흘러나왔다. 혁명소리를 깔아놓기 위해 일부러 라디오를 크게 틀어 놓는 것이었다.

9월5일 저녁 8시반쯤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6일 저녁 9시쯤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고문자들이 "지쳐서 물러날 때까지 전기고문은 계속되었다. 고문대 위에서 답은 "네, 그렇

의도 그리고 배경에 관한 것이었다.

문용식씨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추위와 나와의 조직적 관계는 없는 것으로 고문자들도 받아들였고 다만 문용식씨와 두 차례의 개인적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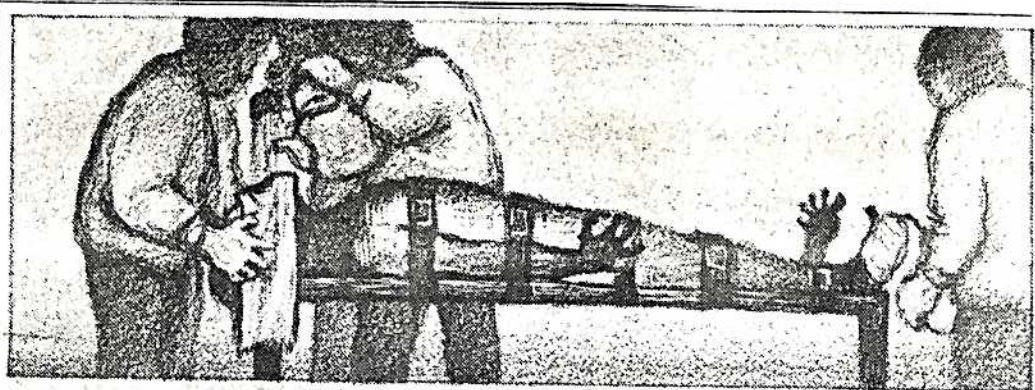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되고 판사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 것은 한 차례의 만남뿐이었고, 그때 내가 민족민주주의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것이었다. 물론 실제로는 그런 일은 없었다.

유죄의 증거가 된 것이라곤 문용식씨가 남영동(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서 고문을 받아 공황상

있는 것이 그것을 입증한다.

80년 광주 민주항쟁을 겪으면서 당시 주한 미사령관이었던 위컴의 한민족은 들쭉 근성을 갖고 있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곱곰이 되씹으며, 또 미 대사였던 위커의 민주운동가는 못된 망나니들이라는 망언에서 민족민주주의야말로 우리가 나갈 길이라고 확신하였다.

광범한 민중연합이 주체가 되는 자주적인 민족통일국가의 수립,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며, 또한 성취될 수 있는 목표이다. 이 때문에 또다시 투옥되어야 한다면 나는 그것을 감수할 작정이다.



9월8일 일요일. 오전 10시계부터 1시반까지, 저녁 7시계부터 밤 12시까지 최악의 전기고문을 두 번 당했다. 저 80년 5월의 광주민중항쟁이 85년 9월에

또다시 일어나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도저히 이럴 수는 없는 것이었다. 당시의 내 추측은 맞지 않았지만 나에 관한 한 이날의 고문은 80년 5월의 광주민중항쟁, 그 악몽의 연속이었다.

고문자들의 광기, 잔혹함이 한편에 있었고, 인격의 붕괴, 착란 상태가 그 반대편에 있었다. 사실상 저항다운 저항은 이날로써 끝장나 버렸다. 나는 끝내 항복하고 만 것이었다.

아침 10시계 총경 윤재호가 들어와 이렇게 소리쳤다. "너 이 새끼, 배후를 안 대, 컷구멍에 고춧가루를 쳐넣어서 폐기종을 만들어 죽여 버리겠다. 안 델 거지. 그거(고문대) 들어와. 이 새끼 내가 직접 고문할게." 이날 고문

무릎을 꿇고 사느니...

전 민청련의장 김근태씨 수기

(3)

1988. 7. 21

고통을 가하는 것이었다. 진동 때문에 심한 통증이 오고 상처가 깊이 패 피가 흐르는 듯했지만 그래도 이것은 다른 고문에 비하면 건널 만했다.

이날의 주제는 74년도에 강원 룡 목사가 원장인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개최한 '노조간부 지도력개발교육'에 참석하여 작성한 프로그램 내용이었다. 이화여대 백재봉 교수에 의해 진행된 것이었는데, 각자 자기 일생계획표를 작성해 보고, 죽어 묻히게 되었을 때 쓰여지기를 희망하는 묘비명을 생각하여 발표하라는 것이었다. 쌍팔 연도인 올해 통일을 이루고, 그 전 언제쯤에 민중정당을 창설하고, 70세 넘어서 죽게 되면 "여기 인간을 사랑하던 한 사람이 묻히다"라고 적힌 묘

지 열번째의 마지막 전기고문을 받았다. 이때까지의 모든 것을 총정리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남영동을 떠나는 날이 왔다. 26일 오후 2시계, 나는 김수

현과 백남은에게 악수를 청했다. 속으로 울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당신들에게 치참한 고문을 당하고 간다. 너무나 끔찍하게 당해서 분노하는 것조차 두려운 것이 한스럽다. 이 저주받을 인간들이, 악마같은 자들이 내 '생사여탈권을 가진 것처럼' 군림하였으며, 그에 아양조차 떨어야 했던 이 끔찍한 지옥을 내가 어떻게 잊을 것인가."

구치감으로 향하는 자동차 속에서 따스한 오후의 햇빛을 온몸에 받았다. 아, 이 햇빛 속으로, 이 낮익은 거리로 나는 돌아온 것이었다. 죽음으로부터 회생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검찰청사 5층 승강기 앞에서 아내 인재근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기억같은 만남을 놓칠

남영동 떠나 검찰송치...죽음에서 회생 고문자 견재하는 '범죄적 침묵'에 분노

자들의 모습은 달밤에 먹이를 앞에 놓고 질질 침을 흘리는 털빠진 송냥이들 같았다.

강력한 전류를 오랫동안 흘려 나를 거의 죽음의 강 건너편으로 보냈다. 수건 대신 가제를 대고 고춧가루를 '입속에 쳐넣었고 소금 비슷한 화학약품도 쏟아부으면서 물고문을 했다. 연거푸 소리를 질러대 목은 완전히 붓고 쉬었으며 이후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칠성대에 묶인 채로 발버등을 쳐 발뒤꿈치와 팔꿈치가 해졌으며 상처는 깊어졌다.

이날의 주제는 배후가 누구인가였다. 결국 합세웅 신부와 권호경 목사로 낙착되었다. 문용식 씨가 고문에 '굴복하여 나를 배후로 모는 것을 보면서 무서워하였고 그를 미워했었는데 나 또한 두 분을 배후로 모는 것 외에 어떤 방도가 없었다.

10일 밤 7시부터 10시까지 전기고문을 당했다. 양쪽 발등에 장치를 하고 진동을 일으켜

비가 새워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내가 이미 유언을 남기고 활동하는 철저한 폭력주의자로 저들에 의해 악랄하게 선전되게 됐던 유일한 근거는 이것이었다.

13일, 금요일, 이날의 고문을 경감 김수현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했다. 그렇게 말할 만했다. 악독하게 감행되었다. 13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반까지, 14일 새벽 3시부터 5시반까지 전기고문이 계속되었다. 민청련 재정이 중요 문제였다. 재미동포 심기섭 선생으로부터 개신교 인권위원회를 거쳐 부쳐 온 45만원이 문제였다. 안기부는 이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밝혀내지 못한 남영동(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을 비롯하면 '보양이다. 망신당한 분풀이를 몽땅 쏟아부는 고문을 했다. 13일, 이날부터는 이미 기력이 다 떨어져 전기고문, 물고문을 가해도 발버등을 칠 수 없었다.

20일 저녁 8시부터 10시반까지

수는 없었다. 내가 받은 치참한 고문을 정확하고 간명하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발과 팔뒤꿈치의 찢어진 상처를 보여주었고 발등의 거머게 탄 전기고문 상처를 설명하였다. 이렇게 해서 정치군부의 야수적인 고문은 온 세상에 폭로되게 된 것이었다.

내가 석방된 지금 이 모두가 지나가 버린 일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다. 고문자들은 아직 견재하며, 이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요구하는 재정신청은 법원에 의해 1년 이상 묵살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하였지만 그것 또한 아무런 대답이 없다. 나는 이것을 범죄적 침묵이라고 규정하며 항의한다.

'이 끔찍한 고문을 다시 한번 드러냄으로써 아직도 군림하고 있는 정치군부의 진면목을 명백히 폭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민족민주운동이 한걸음 더 전진할 수 있기를 충심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다. <끝>

3.8.5 1988 공문범인들을 처단하라

부친사의 밤과 남영동의 비명, 고문과 악형, 치욕과 야만의 시대는 갔는가?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짐승과 같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지른 자들, 그것을 등 뒤에서 조종하고 비호하고 진상을 은폐조작한 자들 가운데 대다수가 아직도 처벌을 받기는 커녕 버젓이 권력의 쭈추부에 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5년 12월 30일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씨는, 그해 9월 4일부터 22일 동안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자신이 당한 십여 차례에 걸친 전기고문과 물고문의 전모를 소상히 폭로하고, 고문경관들의 이름과 직위까지 일일이 밝혀서 검찰에 고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들기만 해도 소름끼치는 그 고문을 지휘했던 윤재호 총경이 현직 치안본부 형사 1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을 비롯, 당시의 고문경관들 전원이 현재까지 아무런 탈 없이 경찰에 남아 있다.

김근태씨의 고소에 대하여 검찰은 86년 12월 30일 재대로 증거조사를 한 흔적도 없이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김씨가 이에 불복하여 87년 1월 19일 서울고법에 내놓은 재정신청서는 20일의 법정 처리기간을 훨씬 지나 무려 1년 반이 흐른 지금까지도 법원 캐비닛 속에서 낯잠만 자고 있다. 김근태씨는 법정에서나 감옥 안에서나 석방된 뒤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그 고문의 진상을 거듭거듭 폭로하였고, 지금 도하 각 신문·잡지

들이 그 폭로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당사자인 고문경찰관들이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이나 이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처럼 쓰다 달다 한마디 말이 없다. 이것이 대체 무슨 경우인가? 이 상태를 언제까지 끌고 가려는가?

긴말을 할 것이 없다. 김근태씨의 폭로내용이 진실이라는 것 그리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도 털끝만한 의심도 품지 않는다. 우리는 검찰의 이 불기소 결정의 배후에도 권인숙씨와 박종철씨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검은 손길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직감한다. 만약 현 정부가 그들이 누누이 내세워 온대로 '고문근절'의 의지를 조금이라도 품고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법원도 즉각 김근태씨와 고문경찰관들의 대질신문 등 재정신청사건의 심리에 착수하여 재정결정을 내려야 한다. 새로 구성된 사법부가 과연 사법권 독립과 쇄신의 결의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이 일을 통하여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국가가 권인숙·김근태씨 사건 등을 비롯한 그 동안의 모든 고문범죄 사례들의 진상은폐·조작경위에 대해 국정조사권을 발동,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활동전모에 아르기까지 한 점의 의혹도 남김 없이 진실을 밝혀 주기를 촉구한다.

김근태씨 재정신청 심리 피의경찰 고문사실 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열래 부장판사)는 19일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41)씨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두번째 증거조사를 실시, 재정신청인인 김씨의 부인 인제근씨와 피의자인 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경찰관 최상남 경위 등 2명을 불러 심문했다.

인씨는 이날 정석모 당시 내무장관 등을 고소한 이유와 김씨의 고문사실을 처음 안 경위 등을 진술하고 고소한 16명 가운데 김씨의 고문과 직접 관련이 없는 김재기(당시 서울지검 공안부검사·현 상주지청장) 검사와 당시 대공수사단 수사관 유장환, 홍승상, 김창연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였다. 1988.10.20

최씨는 당시의 조사현장과 조사경위 등에 대해서는 진술했으나 김씨의 고문사실은 부인했다.

3.8.5 1988 金槿泰씨 고문 증거조사

서울高法, 재정신청관련 印在權씨 수사관 심문

1988.10.19

서울고법(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 조열래 부장판사(19일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41)씨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두번째 증거조사를 실시, 재정신청인인 김씨의 부인 인제근씨와 피의자인 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경찰관 최상남 경위 등 2명을 불러 심문했다.)

인씨는 이날 정석모 당시 내무장관 등을 고소한 이유와 김씨의 고문사실을 처음 안 경위 등을 진술하고 고소한 16명 가운데 김씨의 고문과 직접 관련이 없는 김재기(당시 서울지검 공안부검사·현 상주지청장) 검사와 당시 대공수사단 수사관 유장환, 홍승상, 김창연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였다. 1988.10.20

최씨는 당시의 조사현장과 조사경위 등에 대해서는 진술했으나 김씨의 고문사실은 부인했다.

88.10.20 2004

拷問문제 裁判계류 自體조사 계획없다

치안본부 부인 金槿泰씨 고문사실의 金槿泰씨 고문사건의 국정조사 관련해서 논란되고 있는 것

고문경찰관들이 모두 고문사실을 부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사건의 피의자 김근태씨의 변호인측은 고문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치안본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0일 검찰이 김씨의 고문사실을 부인한 점에 대해 "검찰이 재정신청이므로 검찰의 자제조사를 통해 고문사실을 밝힐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80년대의 두 얼굴 김근태·전기환씨 나란히 증언

1988.10.20 3085

김근태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서 받은 고문에 관한 김근태 전민청련 의장의 증언은 이춘구 내무장관과 조종석 치안본부장도 배석한 가운데 19일 오후 7시30분부터 2시간반 동안 매우 숙연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김근태씨는 이날 내무위의 내무부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증언도중 의원들이 "몸이 불편하니 앉아서 증언해도 좋다"는 의원들의 권유에 "국정감사를 행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라도 서서 계속하겠다"면서 고문의 진행과정, 고문수사관의 이름, 고문의 은

히 기억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씨는 이에 대해 "인상착의는 열거할 수 없지만 20여 일 동안 함께 지낸 사람들이나 당사자들이 나오면 모두 지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정확한 시간과 날짜는 고문경찰관의 손목시계를 보고 알았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 정규환 의원(평민)이 "철야감사를 해서라도 김근태씨 고문사건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하자 "감상적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서 야당의원들이 맞고함을 치기도 했다.

신명식 의원(민정)은 "증인출두 통지를 받기 전에 증인으로 신청된 것은 누구를 통해 알았으며 이 문제에 대해 상의한 정

치인이 있었느냐"고 물어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최기선 의원(민주)과 사전에 각본을 짰다는 인상을 주려고 애쓰기도 했다. 이에 김씨는 "최 의원의 보좌관을 통해 야당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것을 알았다"면서 사전 각본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조세형 의원(평민)은 "국정감사가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게 돼 있지만 고문의 지휘자와 실행자들이 현직에 있다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기선 의원은 김씨와 함께 증인으로 요청했던 당시 남영동 대공분실장 윤재호씨가 출석하지 않자 정동성 위원장에게 소명을 요구하며 윤재호씨를 증인으로 데려올 것을 요청했다.

“고문시간·날짜 정확하게 기억 지휘자·하수인 나타나면 지목할수 있다”

폐과정과 폭로를 위한 자신의 노력 등을 소상하게 진술했다.

그는 고문날짜와 시간, 고문자 이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데 대해 "고문자들이 아무런 의상도 남기지 않을 것이며 본 사람도 없기 때문에 고문사실을 폭로하더라도 부인하면 끝난다고 해, 날짜와 시간 등 모든 정신을 집중해 파악하고 기억했다"고 말했다.

이날 증언과정에서 김씨의 생생한 폭로가 진행되자 일부 야당의원들은 눈물을 닦기도 했으며 민정당 의원들은 대부분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일부 민정당의원들은 김씨의 진술을 의심하는 듯한 질문까지 했다.

이공규 의원(민정)은 "고문자들 전원에 대해 인상착의를 이 자리에서 설명해 달라" 또는 "515호 조사실에는 달력이 없는데도 어떻게 날짜를 그렇게 정확



19일 내무위의 내무부 감사에 증인으로 나란히 출석, 선서하는 김근태씨(오른쪽)와 전기환씨 <진정영 기자>

전기환

‘용산 마피아’추궁에 “모른다”

19일 내무위의 내무부 감사에 증인으로 나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형인 전기환씨는 경찰인사개입, 노량진수산시장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이권개입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모르는 일" "그런 사실 없다" "아니다"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전씨는 "권력이 무상한 줄 알았느냐"는 물음에 침뚫한 표정으로 "네"라고 낮은 소리로 답변했다.

관할 경찰서장이 매일 찾아가 문안인사를 드렸다는데, "사실이 아니다. 두서너번은 적은 있다."

-'용산마피아'란 말을 들어 보았나.

=물었다.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신문에 이

말을 쓴 이에게 물고 싶다.

-용산사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 중 이는 경찰관들이 특별히 잘 승진한 것과 관련이 있는가.

=그런 사실 없다. 이들이 각자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해 좋은 자리에 왔는지는 몰라도 인사는 오직 인사권자의 권한인데 이를 어떻게 침해할 수 있는가. 그런 실력도 없다. 아마 추측인 듯싶다.

-5공화국 기간중 경찰간부들을 불러 식사도 내고 가끔 격려금도 주었는가.

=그렇다.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이며 이들이 수고하는

것에 대해 식사나 하라고 주었다.

-돈은 어디서 났는가.

=과천에 가지고 있던 땅 판 돈에서 썼다.(전씨는 이 부분에서 땅 판 돈에서 나온 매월 이자 7~8백만원에서 격려금을 지불했다면서 거래은행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가 잠시 뒤에 한일은행 무교동지점이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전씨에게 거래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해 전씨는 이에 응하기도 했다.

-생족회원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전직 치안본부장들의 친목

단체로서 여기에 초청을 받아 저녁을 먹은 뒤후 그 답례로 나도 한번 초청한 적이 있다. 그 뒤 4~5차례 만났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다.

=안부를 묻는 정도였다.

-동생인 대통령을 만나면 경찰이 고생한다는 등의 얘기를 했는가. 생족회에 초청받게 된 것은 동생 때문이 아닌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

-경찰인사에 간접적인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는가.

=그렇다. 청탁을 받은 일은 있었으나 친척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윤국한·최영선 기자>

23日間 10차례 拷問당했다

1988. 10. 20
중앙

오랜 수감자의 수감기간은 23일, 10차례의 拷問을 당했다. 수감자들은 23일 동안 10차례의 拷問을 당했다.

수감자들은 23일 동안 10차례의 拷問을 당했다. 수감자들은 23일 동안 10차례의 拷問을 당했다.

金權泰씨 고문



“변호인보는데서 矯前대공수사단장 金權泰”

수감자들은 23일 동안 10차례의 拷問을 당했다. 수감자들은 23일 동안 10차례의 拷問을 당했다.

수감자들은 23일 동안 10차례의 拷問을 당했다. 수감자들은 23일 동안 10차례의 拷問을 당했다.

수감자들은 23일 동안 10차례의 拷問을 당했다. 수감자들은 23일 동안 10차례의 拷問을 당했다.

수감자들은 23일 동안 10차례의 拷問을 당했다. 수감자들은 23일 동안 10차례의 拷問을 당했다.

수감자들은 23일 동안 10차례의 拷問을 당했다. 수감자들은 23일 동안 10차례의 拷問을 당했다.

수감자들은 23일 동안 10차례의 拷問을 당했다. 수감자들은 23일 동안 10차례의 拷問을 당했다.

수감자들은 23일 동안 10차례의 拷問을 당했다. 수감자들은 23일 동안 10차례의 拷問을 당했다.

수감자들은 23일 동안 10차례의 拷問을 당했다. 수감자들은 23일 동안 10차례의 拷問을 당했다.

수감자들은 23일 동안 10차례의 拷問을 당했다. 수감자들은 23일 동안 10차례의 拷問을 당했다.

수감자들은 23일 동안 10차례의 拷問을 당했다. 수감자들은 23일 동안 10차례의 拷問을 당했다.

수감자들은 23일 동안 10차례의 拷問을 당했다. 수감자들은 23일 동안 10차례의 拷問을 당했다.

수감자들은 23일 동안 10차례의 拷問을 당했다. 수감자들은 23일 동안 10차례의 拷問을 당했다.

수감자들은 23일 동안 10차례의 拷問을 당했다. 수감자들은 23일 동안 10차례의 拷問을 당했다.

수감자들은 23일 동안 10차례의 拷問을 당했다. 수감자들은 23일 동안 10차례의 拷問을 당했다.

수감자들은 23일 동안 10차례의 拷問을 당했다. 수감자들은 23일 동안 10차례의 拷問을 당했다.

수감자들은 23일 동안 10차례의 拷問을 당했다. 수감자들은 23일 동안 10차례의 拷問을 당했다.

23日間 10차례 拷問당했다

1988. 10. 20
중앙

오랜 재판자의 재판관직을
지니 1988년 10월 23일
대법원에서 열린 10차 재판
을 끝냈다.

전날 4시간 30분 동안
이대법원에서 열린 재판
은 10차 재판의 재판관
을 끝냈다.

전날 4시간 30분 동안
이대법원에서 열린 재판
은 10차 재판의 재판관
을 끝냈다.

전날 4시간 30분 동안
이대법원에서 열린 재판
은 10차 재판의 재판관
을 끝냈다.

전날 4시간 30분 동안
이대법원에서 열린 재판
은 10차 재판의 재판관
을 끝냈다.

전날 4시간 30분 동안
이대법원에서 열린 재판
은 10차 재판의 재판관
을 끝냈다.

전날 4시간 30분 동안
이대법원에서 열린 재판
은 10차 재판의 재판관
을 끝냈다.

전날 4시간 30분 동안
이대법원에서 열린 재판
은 10차 재판의 재판관
을 끝냈다.

金推泰씨 고문



전날 4시간 30분 동안
이대법원에서 열린 재판
은 10차 재판의 재판관
을 끝냈다.

전날 4시간 30분 동안
이대법원에서 열린 재판
은 10차 재판의 재판관
을 끝냈다.

전날 4시간 30분 동안
이대법원에서 열린 재판
은 10차 재판의 재판관
을 끝냈다.

전날 4시간 30분 동안
이대법원에서 열린 재판
은 10차 재판의 재판관
을 끝냈다.

전날 4시간 30분 동안
이대법원에서 열린 재판
은 10차 재판의 재판관
을 끝냈다.

전날 4시간 30분 동안
이대법원에서 열린 재판
은 10차 재판의 재판관
을 끝냈다.

전날 4시간 30분 동안
이대법원에서 열린 재판
은 10차 재판의 재판관
을 끝냈다.

전날 4시간 30분 동안
이대법원에서 열린 재판
은 10차 재판의 재판관
을 끝냈다.

전날 4시간 30분 동안
이대법원에서 열린 재판
은 10차 재판의 재판관
을 끝냈다.

전날 4시간 30분 동안
이대법원에서 열린 재판
은 10차 재판의 재판관
을 끝냈다.

전날 4시간 30분 동안
이대법원에서 열린 재판
은 10차 재판의 재판관
을 끝냈다.

전날 4시간 30분 동안
이대법원에서 열린 재판
은 10차 재판의 재판관
을 끝냈다.

전날 4시간 30분 동안
이대법원에서 열린 재판
은 10차 재판의 재판관
을 끝냈다.

전날 4시간 30분 동안
이대법원에서 열린 재판
은 10차 재판의 재판관
을 끝냈다.

전날 4시간 30분 동안
이대법원에서 열린 재판
은 10차 재판의 재판관
을 끝냈다.

전날 4시간 30분 동안
이대법원에서 열린 재판
은 10차 재판의 재판관
을 끝냈다.

“변호인보는데서 矯導官이 증거물 뺐아” 前대공수사단장 金씨 본적도 없다 否認

전날 4시간 30분 동안
이대법원에서 열린 재판
은 10차 재판의 재판관
을 끝냈다.

전날 4시간 30분 동안
이대법원에서 열린 재판
은 10차 재판의 재판관
을 끝냈다.

전날 4시간 30분 동안
이대법원에서 열린 재판
은 10차 재판의 재판관
을 끝냈다.

전날 4시간 30분 동안
이대법원에서 열린 재판
은 10차 재판의 재판관
을 끝냈다.

국정감사 이모저모

1988.10.2

내무위

김근태씨 고문 여부에 대한 증언으로 20일 새벽까지 감사를 진행한 내무위는 20일 낮 12시 김씨 고문과 관련, 윤재호 총경이 위증을 했는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감사를 속개했으나 김씨와 윤씨를 대질신문해야 한다는 야당 쪽 주장과 우선 증인으로 나온 대공수사단 김수현 경감 등 3인의 증언을 듣자는 여당의 주장이 엇갈려 논란을 벌인 끝에 1시간 만에 정회했다.

야권 3당 간사는 4당 간사회의에 앞서 별도로 모임을 갖고 대질신문을 양보하는 대신 김근태씨와 윤재호씨 등 관계 증인 모두를 불러 증인선서를 함께 하자는 선의로 양보하기로 의견을 조정했으나, 민정당은 이미 와 있는 김수현·백남은·허만조씨 등에 대한 증언부터 듣자고 맞서 4시간30분을 의사진행 방법문제로 허비한 뒤 오후 5시30분에야 감사가 재개됐다. 이어 증언대에 나선 고문 용의 경찰관들은 김씨를 조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고문 사실에 대해서는 "고문을 한 적도 없고 남영동에서 고문이 이뤄지는 걸 본 적도 없다"며 고문 사실을 전면 부정했다. 김씨에 대한 수사 책임자였던

김 경감은 야당의원들이 "그러면 박종철씨는 왜 남영동에서 죽었나"는 추궁에 "내 소관이 아니라 모른다"고 답변했다.

최기선 의원(민주)이 "김씨가 민청련 의장으로 있던 2년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구류를 사는데 경찰에 연행됐으나 묵비권을 행사, 단 한번도 자술서를 쓴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환기시킨 뒤 "김씨가 유독 남영동에서 여러 차례 자술서를 썼는데 이걸 그가 자술서를 쓰지 않으면 안되게 된 상황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며 추궁하자 김 경감은 대답을 못했다.

남영동에서만 18년째 계속 근무

고 답변했다.

이날 감사에서 김근태씨 선임 변호사인 김상철 변호사는 "김씨가 검찰로 송치된 85년 9월26일 김원치 검사실에서 김씨를 만나 고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를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우선 양쪽 팔소매를 제쳤을 때 팔꿈치에 울긋불긋한 반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양발 뒤꿈치에 엄지손가락 크기의 선홍색 상처를 확인했으며 양 발가락 위쪽에 주사바늘 크기의 침자국이 검게 아물어 있는 10여 개의 자국을 보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발뒤꿈치의 상처는 벨트에 묶인 채 전기고문

변호사와 경찰...누가 위증인가

'김근태씨 고문' 대질신문 못한채 이견만 들어

무증인 백 경감은 조세형 의원이 김근태씨의 증언기사를 본 소감을 묻자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고 생각했다며 "언론에 대해서도 내심 불쾌했다"고 답변했다.

허 경사는 신순범 의원(평민)이 칠성관에 묶여 있는 김씨를 두 수사관이 물고문하는 가로 1m 세로 30cm 스케치를 보여주며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느냐"고 물었으나 역시 "본 적이 없다"

의 고문에 못 이겨 몸부림치다 살점이 짓이겨져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발가락의 점 상처는 전기고문시 전기침을 쬐는 흔적으로 보였다"고 덧붙였다.

역시 김씨의 선임변호사인 홍성우 변호사는 "변호사로 선임된 이후 85년 10월14일부터 11월28일까지 12차례 김씨를 접견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했으나 번번히 출정했다는 이유로 접견에 실패했다"면서 "뒤에 확인해 본 결

과 김씨는 그렇게 자주 출정나가 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검찰은 문체의 상처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호인에게 보여 주지 않으려 변호인 접견을 기피한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홍 변호사는 "85년 12월9일 처음으로 김씨를 접견한 자리에서 김씨로부터 7~8회에 걸친 전기고문과 두차례의 물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들었으며, 또 김씨가 고문흔적으로 보관했던 상처

딱지를 교도관에 의해 탈취당한 경위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이어 "김씨에 의하면 85년 9월4일 5시간쯤 두 차례에 걸쳐, 5일 5시간 반쯤, 8일 5시간 반, 10일 3시간, 13일 4시간반, 3시간반 두 차례에 걸쳐 전기고문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증언했다.

한편 윤 총경의 위증에 대한 고발결정을 둘러싸고 "이 자리에서 고발여부를 결정하자"는 야당 쪽 주장과 "추후 상임위를 다시 소집해 결정하자"는 민정당 쪽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이날 밤 12시까지로 되어 있는 감사 한계시간까지 여야간 설전이 계속됐다.

김근태씨 전기·물고문 폭로

1988.10.2

막판 국정감사 장준하씨 정치암살 의혹 규명 요구

중반전에 접어든 국회의 국정감사는 19일 내무부, 육군 군수사령부, 서울시 등에 대해 진행됐다. <관련기사 3, 4, 10면> 내무위는 내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김근태(전 민청련 의장)씨

와 김씨가 고문팀의 책임자로 지목한 윤재호 치안본부 형사1과장(전 대공분실장)을 출석시켜 김씨에 대한 고문여부를 밝히도록 신문했다.

김근태씨는 "지난 85년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연행 돼 전기고문 8회, 물고문 2회 포함 10차례에 걸쳐 고문을 받았으며 고문은 한번에 3~5시간 계속됐다"고 말하고 "고문자들은 고문과정에서 속이 뒤집혀 기도가 막힐까봐 고문을 앞두고는 밥도 주지않았다"고 폭로했다. 그는 고문자들이 전기고문을 할때에는 팬티도 벗겼으며 전기고문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에 물고문을 가했으며 고문으로 목이 쉬면 목트이는 약

을 먹인 뒤 다시 고문을 가하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암기시켰다고 밝혔다.

김씨에 이어 증언대에 선 윤재호 총경은 야당의원들의 김근태씨에 대한 고문사실 추궁에 "김씨가 고문받았다는 방에는 기본적도 없다"면서 "고문은 물론 만

나거나 얘기한 적도 일체 없다"고 고문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고문여부에 대해 김씨와 윤 총경의 증언이 엇갈리자 야당의원들은 대질신문을 요구했으나 정동성 위원장(민정)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대질신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해 여야간에는

란이 벌어졌다.

이에 앞서 야당의원들은 증인으로 나온 전기환(전두환씨의 형)씨에게 "동생이 대통령직에 있음에 이용, 경찰의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나"고 물고 그 배경과 그로 인해 받은 금액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조만후 의원(민주)은 75년 8월의 장준하(전 사상계 발행인)씨 사망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장준하씨 부인 김희숙씨를 참고인으로 대동하고 나와 장씨의 죽음과 관련, 최초로 변사사건을 알려준 사람이 정체불명이며 시신의 양팔 안쪽에 피명자국이 있었던 점 등 8가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치 암살극의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야당의원들은 "전투경찰대의 시위진압 동원이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관련법규를 고치거나 전투경찰대를 해산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춘구 내무부장관은 "집단소요 등 치안수요의 증대로 작전전투경찰의 일부를 동원, 대체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방부와 협의해 법을 개정, 전경을 의경으로 전환하거나 경찰력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답변

했다. 이 장관은 또 의원들의 삼정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요구에 대해 "정부에서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5cm 傷處 3점 부었다

「金權泰씨 「국민」 경찰·변호인 國警중언」

◇金權泰씨

—金權泰씨를 소개합니다.
 ◇85년 4월 10일 서울에서
 1955년 10월 10일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대학교 법학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했다. 그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許萬兆씨

—金씨를 소개합니다.
 ◇법정 변호사
 ◇법정 변호사
 ◇법정 변호사

“필부갈라지고 댁나... 탈진도” “췌장대근책보고서야 알아” “췌장감 병사

“필부갈라지고 댁나... 탈진도”
 “췌장대근책보고서야 알아”
 “췌장감 병사

—金權泰씨를 소개합니다.
 ◇85년 4월 10일 서울에서
 1955년 10월 10일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대학교 법학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했다. 그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사형선고...
 —金權泰씨를 소개합니다.
 ◇85년 4월 10일 서울에서
 1955년 10월 10일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대학교 법학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했다. 그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김근태씨는 위대한 소설가인가

1988. 10. 23

“그 칠성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면대보다 약간 높고 남자팔뚝 굵기의 각목 4개가 사람 키보다 약간 크게 길기로 펼쳐지고요. 앞 부분은 경사져서 세면대에 밀착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담요가 깔려 있고요. 사람이 눕혀지면 담요로 쓴 다음에 그 바깥을 줄로 꽂꽂 묶어 버리는 것입니다. 칠성대 위에 올려져 눕혀진 나는 순식간에 완전 결박되었습니 다. 머리가 평 하면서도 ‘자, 그래 견디보자. 견 디는 것이다. 결국 언젠가는 닥쳐올 것이라고 각오했던 바가 아니냐.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 이 그랬고, 저 70년대 긴급조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당했던 그것이 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민주화운동 청년연합(민청련)이 펴낸 <이제 다시 일어나>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이 책은 이 단체의 전 의장 김근태씨가 고문과 수감생활에 관해 기록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바로 이 김근태씨가 국회의 국정감사 증언대 에 올라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지난 19일 내무위의 국정감사에서 “85년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연행돼 전기고문 8회, 물 고문 2회, 모두 10 차례에 걸쳐 고문을 받았다” 고 말하고 고문의 책임자로 치안본부 형사과 장 윤재호 총경(당시 대공분실장)을 지목하고 고문을 직접 가한 경찰관들의 이름을 밝혔다. 김근태씨의 말에 대해 윤재호씨는 “김근태씨가 고문당했다는 방에는 가 본 적도 없다”면서 “고 문은 물론이고 만나거나 얘기한 적도 일체 없 다”고 주장했다. 김씨를 직접 수사한 김수현 경 감은 김씨의 증언을 신문에서 보고 “이렇게 거 짓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면서 “언론에 대해서도 내심 불쾌했다”고 말했다.

김근태씨의 변론을 맡았던 홍성우·김상철 변 호사는 그가 검찰로 송치될 때 검사실에서, 그 리고 구치소의 접견실에서 “참혹한 상처들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김근태씨와 변호사들의 증언이 진실이라면 윤 재호 총경과 고문을 가한 경찰관들은 즉각 구 속되어 재판에서 극형을 받아야 마땅하고 당시 의 내무장관과 치안본부장도 옹분의 책임을 져 야 한다.

윤재호씨를 비롯하여, 김근태씨가 ‘인간백정’이 라고 부른 경찰관들의 말이 진실이라면 김씨는 위대한 소설가이거나 거짓말장이임에 틀림없다. 그는 <남영동>과 <이제 다시 일어나>라는 두 권의 책에 그가 당한 고문을 영화보다 더 생생 하게 묘사하고 고문 전문가들의 이름을 명시하 고 있다. 그가 문학적 상상력이 뛰어난 소설가 로서 현직 경찰관들에게 애꿎은 고문의 누명을

씌웠다면, 그는 지난 봄에 받은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을 스스로 반납해야 한다. 아니 이것으 로는 부족하다. 그가 거짓말장이라면 민족민주 운동가라는 이름을 당장 버려야 한다. 아니 이 것으로도 모자라다. 그는 책으로, 그리고 국민 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에서 경찰관들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당사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야 마땅하다.

김근태씨와 문제의 경찰관들 양자 가운데 한 쪽이 거짓말을 한 것은 분명하다. 누가 국민을 속이고 있는가를 가리는 국정감사에서 민정당 과 야당의 자세는 판이했다. 야당의원들은 김근 태씨 사건이 국민의 목숨이나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보고 경찰관들을 진지하고 집 요하게 신문했으나 내무위원장인 민정당의 정 동성 의원은 무엇이 급한지 날치기로 이 사건 의 감사를 끝내려다가 야당의 거센 항의를 받 고 굴복했다.

이제 우리는 몇 가지의 역사적 진실을 바탕으 로 김근태씨 고문사건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 진실들은 이렇다. ‘남영동’은 고문으로 박종 철씨를 죽였다. ‘남영동’에는 일제 고등경찰이 민족해방운동가들을 고문하고 학살할 때부터 ‘고 문기술’을 익힌 전문가들이 최근까지 있었고 그 기술은 후배들에게 전수되거나 첨단기술과 결 합되었다. 유신독재 이래 헤일 수 없이 많은 학 생과 민주인사들이 그곳에 끌려가서 온갖 고문 을 받았다. 경찰의 총책임자인 내무장관 자신이 삼청교육 이수자 명단을 폐기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박종철씨 사건에서 경찰의 고위간부 대부 분은 국민을 속이는 은폐·조작의 주범이었다. 우리나라의 민족민주운동은 5월 광주항쟁 이전 부터 국민대중의 절대적 신뢰를 받고 있다. 김 근태씨의 형 국태씨는 소설가이지만 그 자신은 이론에 뛰어난 운동가이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들이 직접 확인한 김씨의 상처는 자해로 인한 것이 아니었고, 그는 자신의 몸을 찌를 흉기를 가질 수가 없었다.

결론은 분명하다. 김근태씨는 고문을 당했다. 그와 함께 고문당한 후배는 정신착란을 일으켰 다. 김근태씨가 고문당한 곳은 ‘남영동’이다. 국 회와 검찰은 이상의 결론을 근거로 윤재호 총 경을 두목으로 한 ‘인간백정’들을 심판대에 올 려야 한다. 이 심판은 지금 도덕적으로나 치안 의 능력으로나 파탄에 빠져 있는 경찰이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책에 지나지 않는다. 고문한 자들이 승진해서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한,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은 앞으로 이 검은 손들에게 목을 졸릴 것이다.

밝혀
취조중

“김근태씨·변호인 고발 철회를”

평민·민주 민정서 불응땐 국정조사권 발동

평민, 민주당은 24일 민정당이 가혹한 고문의 피해 당사자인 김근태씨와 홍성우·김상철 변호사를 위증혐의로 고발동의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민정당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거나 5공비리특위에서 철저히 규명키로 했다.

김영삼 민주당 총재는 “인권문제의 대표적 피해자라 할 김씨를 위증죄로 고발한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비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정조사권

을 발동, 다시는 반문명적이고 비인간적인 고문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수 평민당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 “민정당이 위증을 한 김수현·백남은 경감 등에 대해 은근히 비호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 김씨 등을 위증으로 고발하는 몰염치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난하고 “앞으로 특위활동 등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 관계자들을 엄벌에 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고문 못이겨 김근태씨 관련 허위자백

크게 튼 라디오사이로 처참한 비명... 지하통로서 탈진 목적

함께 구속됐던 문용식씨 본지에 편지

나는 김 의장 고문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민추위’사건으로 7년형을 선고 받고 3년2개월 동안 형을 살다가 지난 개천절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김 의장은 바로 나의 배후로 지목받아 5년형을 선고받았다. 김 의장이 구속된 것도 내가 김 의장으로부터 소위 ‘민족민주혁명론’이라는 혁명운동 이론을 교양받았다는 나의 ‘자백’ 때문이었다. 남양동 대공분실 경찰관들은 김 의장에게 나의 진술을 시인할 것을 강요하면서 엄청난 고문을 자행하였던 것이다.

김 의장이 불법, 연행되었던 지난 85년 9월4일부터 내가 구치소로 송치되던 9월21일까지

만 17일 동안 김 의장이 고문을 당하던 조사실(515호실) 바로 앞방에서 조사를 받았다. 515호실은 육조가 갖추어져 있고, 질성판 등 고문도구를 들여놓기 좋도록 널찍하게 만들어진 큰방이다. 박종철씨가 고문받다 죽어간 방보다 두배 정도 크다. 본래는 내가 그 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김 의장이 연행되어옴에 따라 방을 내주고 앞방으로 옮겨갔다. 대공분실에서는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인물을 주로 그 방에서 조사하는 게 관례처럼 되어 있다. 대공분실 수사관들은 농담삼아 그 방을 VI P실이라고 불렀다.

나는 체포되어 처음 이틀동안 집중적으로 물고문을 당해 마침

내 육체적 정신적으로 항복하고 말았다. 고문과 폭력에 대한 공포로 일단 심리가 위축되기 시작하면 그후부터는 별 커다란 저항없이 무너져버리기 마련이다. 나의 자술서와 경찰조서는 이런 상태에서 대공분실이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져 갔다.

대공분실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밀폐·차단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방문을 닫고 있으면 웬만한 소리는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는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교대로 들락거릴 때라든가 하루 세끼 식사를 들여오고 내갈 때, 방문이 열려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는 이 때마다 앞방에서 새어나오는 비명소리와 신음소리에 치를 떨곤 했다. 비명소리를 위장하려고 라디오를 틀어놓았으나 라디오 소리 사이사이로

뚫고 나오는 비명소리는 더욱 처참한 것이었다.

수사 진행의 필요상 관련부분을 상호 대조하기 위해 김 의장 담당 수사관이 내방으로 와서 조사를 받아가기도 했다. 이들은 나에게 “너도 김근태처럼 당해보고 싶으냐” “김근태 저 새끼는 독종이어서 조서받기가 쉽지 않다”는 등의 말을 던졌다. 무언가 엄청난 조작이 진행되고 있었고, 김 의장은 이를 이겨내려고 혼신의 힘을 다 쏟고 있음을 알았다.

구치소로 송치되어 검사취조를 받으러 가던 중 구치감에서 검찰청사로 통하는 긴 지하통로에서 김 의장을 우연히 만났다. 김 의장은 검사 입회서기가 앞장을 서고 두 명의 교도관이 양옆에서 부축한 상태에서 힘들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나는 조금 발걸음을 빨리하여 김 의장을 앞지르고는 재빨리 뒤로 돌아 “김 의장님, 제가 문용식입니다”라고 처음 인사를 했다. 물론 김 의장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나에게 혁명이론을 교양하였다고 하여 민추위의 배후 인물로 구속 기소된 사람이 정착 민추위 위원장인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지나친 기막힌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보여준 경찰의 태도는 분노의 차원을 넘어서 차라리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온 국민, 온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세치 혀로 부인하려드는 작태란 실로 서글프기까지 하다.

이런 태도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박종철 사건, 권인숙씨 성고문사건 때도 성을 혁명도구화한다고 역공세를 퍼던 그들이 아닌가.

구체적 물증이 없으니 오리발을 내면 끝이라는 기만적 태도는 국민으로부터 비웃음만 살 뿐이다.

1988. 10.24. 문용식

1988. 10. 25

실시, 전 서울구치소 교도관 최덕씨와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경찰관 홍승상씨에 대한 신문문을 벌였다.

최씨는 이날 신문에서 김씨의 발뒤꿈치 상처에 난 딱지를 교도관이 탈취했다는 김씨 쪽 주장과 관련, 지난 86년 검찰조사 당시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당시 김씨가 변호인들에게 무엇인가를 건네주려 해 불은문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감방 안을 뒤진 일은 있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근태씨 재정신청 2차 3차 증거조사 실시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열래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신문실에서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씨 고문사건 재정신청에 대한 3차 증거조사를

김근태씨 고문 증언

재정신청 4차 증거조사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열래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608호 신문실에서 전 민청련의장 김근태(41)씨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4차 증거조사를 실시, 김씨와 당시 수사를 맡았던 치안본부 김수현 경감을 불러 대질신문을 벌였다.

김씨는 이날 조사에서 "지난 85년 9월4일부터 26일까지 23일 동안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불법 감금돼 10차례의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받았다"며 각 날짜별로 받은 고문의 종류, 강도, 수사관과 나는 대화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

김 경감은 김씨와 대면한 자리에서 김씨의 이 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 "그의 고문주장은 근거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高法서 비공개로 金權泰씨 고문사건 재정신청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

金權泰씨拷問 증거조사

법정사 3부(재판장 趙悅來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김씨를 불러 비공개로 증거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이날 증거신문에서 지난 85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자신이 연행되던 兩營洞 대공본영에서 수사관들이 자신에게 가한 물고문, 전기고문 등 고문회수의 방법과 동당시 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 11.2

동네방네

2일 오전 전 민청련의장 김근태(41)씨 재정신청사건의 4차 증거조사가 열린 서울형사지법 608호 신문실.
 김씨는 3년2개월 만에 처음으로 '김 전무'로 불리던 김수현 경감과 마주 앉아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5층 조사실에서의 처절했던 고문상황을 2시간 동안 '그림 그리듯' 생생하게 설명했다. 김씨에 이어 신문문을 받은 김 경감은 "연행당일인 9월4일

부터 6일까지 영장없이 불법구금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면서도 "김씨를 직접 고문하지 않았으며, 내가 없을 때라도 부하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고문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김근태씨는 "김 전무는 내가 조사받을 때마다 있었고 고문을 지시했으며 9월13일에는 전기고문을 직접했다"고 반박했으나 김 경감의 진술은 달라지지 않았다. 3시간에 걸친 신문이 끝나자 김 경감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맞은편에 앉

아 있는 김씨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바로 그 순간 김씨와 나란히 앉아 조용히 신문과 정을 지켜보던 부인 인제근씨가 고향과 함께 김 경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갑자기 벌어진 일에 김 경감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도망치듯 신문실을 빠져 나갔다. 김근태씨는 법정을 나와 비공개로 진행된 심의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심경을 말했다. "잘못을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철저하게 연극을 하는 걸 보니 인간적으로 측은함을 느낍니다." <유회락 기자>

웃는 김경감 얼굴에 침뱉은 분노

金權泰씨拷問 사실 法院서 인정

서울고법 내주중에 裁定신청 받아 들이른 듯

경찰관 2, 3명 裁判회부 예상



서울고법의 재정신청사건 조사과정에서 고문당한 사실을 주장하려 법원에 출석한 金權泰씨. <申東燕기자>

전 민청련의장 金權泰씨 (42)의 재정신청 사건이 21개 법원과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11월 2, 3명의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문 혐의로 고발된 경찰관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金씨의 재정신청사건의 탄압과 부당한 처우에 대한 탄압을 고발한 金權泰씨(3부) 재정신청사건(재판장 趙悅來부장판사)은 최근 조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내주중 재정신청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명 중 재판에 회부될 것인 점만으로도 알려졌다. 金씨 사건의 재정신청의 받아들여질 경우 주요사건이 된다는 曹川龍, 申高厚 사건의 2년째가 되며, 서울고법(특별검사)을 지점변호사(특별검사)를 지정하고 재판회부된 고문경찰을 구속할 것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金씨 사건 재정신청의 진행이 金씨에 대한 고문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 때 증인으로 출석, 308.5 1988.11.18

기소결정을 했었다. 이에 대해 부인하는 지 11월 4일 변호인단과 별도로 재정신청을 냈으며, 지난해 6월과 같은 11월 부인하는 변호인단이 각각 법원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재판부에 내기도 했다.

◇ 위증 시비 11월 11일 국정조사과정에서 金씨 사건과 관련, 金씨본인과 洪性宇, 金尚振변호사들은 고문사실을 주장한 반면, 경찰들의 尹在錫지안부, 許1과장, 金秀顯과장, 白兩股과장, 許

萬兆과장등 고문이 없었다고 삼박판정판결을 해왔는데 의해 양측 모두 위증고발이 밝혀져 있어 위증판이 불가피한 실정.

그러나 법원측이 이 사건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고문판결을 기소할 경우 국회에서 결정되면 검찰가부들에게는 결정지연으로 불리한 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金權泰씨 사건 11월 11일 85년 8월 24일 三民閣 배후 조종 혐의로 서울고법(특별검사)은 9월 4일 1부 1심 판결을 내렸으며 9월 7일 1부가 2심 판결을 내렸다.

金씨는 11월 11일 재판부 앞에서 조사받던 23일 법원 전기고문·불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출석권유에 불응하며 법원을 향했다.

고서울시립병원·국립정신병원에 감정유치되고 있다.

金씨는 11월 10일 구형 판을 1심(86년 3월)에서 7년, 2심(86년 7월)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돼 복역하던 11월 6일 30일 특별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김근태씨 재정신청 채택여부 곧 결정 백남은 등 수사관 2명 불러 증거조사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열래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서울 형사지법 608호 신문실에서 김근태씨 고문사건 재정신청에 대한 5차 증거조사를 벌였다.

재판부는 이날 지난 85년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김씨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백남은 경감 등 경찰관 2명을 대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관계자 및 피해자 김씨에 대한 증거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곧 재정신청 채

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 4개 인권단체 노대통령에 서한 '김근태씨 고문' 공정조사 촉구

【워싱턴=연합】 미국의 4개 인권 단체는 노태우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의견이 서로 맞서고 있는 김근태씨의 고문사건에 대해 불편부당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 아시아 위치, 북미 한국인권연맹 및 국제 인권법률가단체 등 4개 단

체는 9일 공개된 노 대통령에게 발송한 서한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촉구했다. 이 서한은 전 민청련 의장인 김근태씨가 지난달 국회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했으나 고문을 한 것으로 지목된 윤재호 수사관이 고문 사실을 부인한 데 따라 나온 것이다.